



Spain, Latin America

기성 사회에 반항한 페미니스트, 화가, 그리고 로맨스

송병선_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스무 나라가 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우리나라와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는 아직도 그 목록에는 소설이 비소설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는 고급작가들의 작품이 미국이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생산된 대중소설들보다 더 많이 팔리고 또 더 많이 읽히고 있다는 점이다.

4월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그동안 잠잠했던 두 페루 작가들의 작품이 새로이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는 우리에게도 비교적 알려진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신작《또 다른 구석의 천국》이다. 또 다른 작품은 라틴아메리카의 중요한 작가 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전공자들도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알프레도 브라이세 에체니케의《사랑하는 여인의 파수원》이다.

금년 3월에 출간된《또 다른 구석의 천국》의 주인공으로는 무정부주의적 페미니스트였던 플로라 트리스탄과 그녀의 손자이자 위대한 화가인 폴 고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듯 겉으로 보이는 무대는 유럽이지만, 실패한 유토피아나 혁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적인 요소를 삽입하기도 한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1844년 플로라 트리스탄은 자신의 책《노동조합》을 홍보하기 위해 파리의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고, 고갱은 폴리네시아의 파피티 섬과 마르퀴세스 섬에서 지내던 1892년부터 1903년까지 그림을 통해 모든 서양주의를 제거하면서 감각의 제국에 귀의한다.

이런 단순한 줄거리와는 달리 내용은 권력과 욕망, 천국과 절망, 혁명과 예술의 문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바르가스 요사는 이질로 인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플로라 트리스탄과 ‘말할 수 없는 병’, 즉 매독이 온 몸에 번져 생명이 위독한 폴 고갱을 비교하고, 그들의 업적과 일생을 점검하

면서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할머니는 노동자와 여성의 의식화에 정열을 받치는 반면에, 그녀의 손자는 불후의 명작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두 사람은 서로 상이한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사회 속에서 그들이 순교했다는 점은 흡사하다. 또한 두 사람은 각각의 사회에서 위험한 인물로 분류된다.

바르가스 요사가 19세기의 두 인물을 중심으로 기존 사회에 대한 반항을 묘사했다면, 알프레도 브라이세 에체니케는《사랑하는 여인의 채소밭》에서 17살의 청년과 33살의 이혼녀의 로맨스를 통해 20세기 중반 리마 상류사회의 위선을 고발한다. 2002년에 스페인의 플라네타상을 수상했으며 뒤늦게 베스트셀러가 된 이 작품은 기억과 향수, 관능과 유머와 아이러니로 가득차 있다.

17세의 카를리토스 알레그레는 상류층인 자기 집에서 열린 가든파티에 참석하기로 마음먹는다. 그곳에서 모든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아름답고 돈 많은 나탈리아와 카를리토스는 바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그곳 남자들의 질투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두 연인은 그 집을 빠져나와 채소밭이 있는 리마 근교에 있는 나탈리아의 별장으로 가서 함께 살기로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꿈은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 그의 아버지는 나탈리아를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고발한다. 그러자 두 사람은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열정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배운다.

브라이세 에체니케는 우선 유머가 깃들인 다정한 필체로 우리를 사로잡고, 이내 사랑을 통한 상류 사회의 모순과 억압에 대한 불굴의 저항으로 우리를 감동시킨다. 불경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사랑스러운 이 작품은 라틴아메리카의 현대판《감정교육》인 셈이다. **송병선**